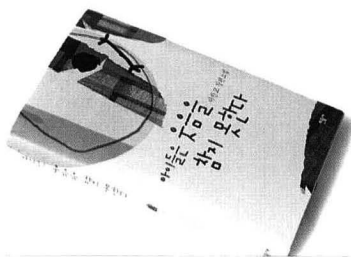


# 유희로부터 화해되는 세속世俗, 통, 통, 통, 공Ball이 곧 공썩이로소이다!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이만교 지음 | 민음사 | 244쪽 | 값 8,000원



당신에게 어느 날 공이 주어진다면? 바닥에 통기면 해가 들어갔다 나올 동안 만큼이나 소식이 없고, 그러나 끝내 하늘에는 닿지 못한 채 떨어지는 바람에 새삼 하늘 높은 줄 알게 되는 공이 주어진다면? 흔히 보는 공이 아닌 특별한 공이 될 때 그것은 권력기체의 도구가 된다. 소설가 이만교 씨(36)는 장편소설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에서 시골 아이 동이에게 특별한 공 하나를 쥐어준다. 일약 힘 있는 실력자가 된 동이는 공의 매혹에 사로잡힌 아이들의 욕망을 조율하며 대립과 반목 속에 권력을 톡톡히 즐기는데….

“공이란 단어가 갖는 여러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유희의 수단인 공Ball과 비어 있다 할 때의 공썩이 그것입니다. 불가에선 자아를 공썩이라 이르는데, 그때의 공이란 단지 실체가 비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연을 통해 자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의미의 공썩이죠. 동이라는 주인공이 별난 공을 갖게 되면

서부터 조작되고 와해되는 아이들 세계의 원형이 담겨 있습니다. 공Ball을 통해 공썩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공을 가진 동이를 따르는 아이들과 공 하나로 유세를 떠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대립, 종내는 어른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세속적인 과장은 그러나 소설의 외피일 뿐이다. 그는 공과 아이들의 기묘한 정치定置를 통해 ‘달콤 씹사름한 초콜릿’ 과도 같은 자본주의의 특질을 주목한다. 자본주의의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그것의 씹사름함에는 냉소적인 태도로 자본주의의 기원, 곧 서구문명을 비판해 왔다는 것이 그 맥락인데, 이러한 냉소적 태도를 극복할 대안으로 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세계를 선택했다.

“자본주의는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 만큼 사람의 본성에도 자본주의의 특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천진하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별난 공 하나가 주어졌을 때, 권력이 작동되고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자본주의적 욕심을 청렴한 얼굴로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이야 말로 인간사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적 주제가 무겁기는 하나 이를 풀어내는 방법론은 이만교 씨의 전매특허인 농담과 익살이다. 공을 슬쩍 버리듯 놓아두고 밖으로 나온 동이가 문구명으로 누나의 행동을 지켜보는 대목, 사이다 병 하나에 오리 알을 두 개나 걸고 벌어진 공 통기기 시합에서 안골 박수무당처럼 동네

곳곳을 옮겨다니며 억이가 공을 통기는 대목의 골계미는 가히 압권이다. 소설을 읽다보면 저의를 감추고 위선 혹은 위악하는 작금의 우리네 모습이 옛날 시골 아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음에 슬땀 등덜미가 간지럽기도 한데, 통, 통, 통, 탄력으로 튀어 오르는, 심장박동수보다 조금 빠른 공썩의 욕망, 그 부박한 본성이 천일하에 드러난 탓일 게다.

“억지스런 얼굴로 고민할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농담이고 익살이죠. 권위적이고 엄숙하기만 한 작풍이 독자의 사랑을 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설과 시가 출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예전과 달리, 다양한 장르의 유익한 책들이 독자와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탄식이 들리는데 천만요, 사람들의 손이 소설과 시를 떠났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따금 소설이 가볍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벼움에도 철학이 있음을 더욱 가볍게 피력한다. 엄숙함의 허위를 벗겨내는 발칙하기까지 한 세상, 빠르게 읽히는 미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여러 장르와 당당히 경쟁하여 읽힐 수 있는 소설쓰기를 그는 현재 모색하고 있다. 한편 소설의 제목을 바꾸어보면, ‘어른들은 웃음을 참는다’라고 읽히는데 그의 소설 세계에 판지 거는 이들을 향한 땀땀 한 마디처럼 들리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 비약 같아 인터뷰 내내 접고 있던 물음이 끝내 잊지 않고 떠오른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